

# “로컬푸드 직매장 늘려 판로 어려움 덜겠다”

금지사, 로컬푸드 활성화 소통 간담회서 약속  
화순 도곡농협 직매장 출하농가 등 여론 수렴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출하농가, 직매장 운영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구복규 전남도의원,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서은수 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 최형열 화순부군수 등이 함께 했다.

김지사는 이날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상황 설명을 듣고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이어 직매장을 돌며 파프리카, 가

지 등 상품 포장작업과 판매대 진열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판로에 걱정이 없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특히 현재 26개인 전남지역 직매장을 35개까지 늘려 생산한 로컬푸드에 대한 판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사는 “도곡 로컬푸드 판매처로 잘 운영돼 생산 농가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201

4년 개장에 주말이면 1일 방문 고객 2천 명이 넘는 로컬푸드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광주 등 다른 지역 고객이 80%를 차지한다.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560농가는 소량 다품목으로 조직화해 당일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과채류와 잡곡, 가공식품 등 654개 품목을 판매한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로컬푸드 판매 실적은 19억원이다. 연 매출액은 지난해 (58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로컬푸드는 중소농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 효과, 농업인의 자신감 증대, 지

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다. 고품으로 영농을 은퇴한 할머니들로 구성된 양정달마루골영농조합법인인 한과, 부각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판매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는 등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팜티투 씨는 애호박, 감자, 업체류를 생산해 연간 4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맡고 있어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와 직거래하거나 제값을 받을 수 있어 귀농인과 청년농부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전남도는 중소농의 소득 향상과 로컬푸드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직매장을 3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26개소에는 5천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과 시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해 롯데슈퍼 광주점포 등지에 직매장 9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매장 설치비 67억6천900만원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2억6천800만원과 경작 규모가 0.5ha 미만인 소규모 및 영세농가에게

지원하는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3억원 등 총 73억3천700만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로컬푸드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나주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장성 상무대 군급식의 로컬푸드 공급비율 27%를 2022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전남지역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서울시 학교급식에도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 전남 ‘영화·드라마 촬영 중심지’ 각광

올들어 ‘백두산’ 등 영화 3편·드라마 4편 제작 지원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전남 명소를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배우 이병헌, 하정우 주연의 영화 ‘백두산’(감독 이혜준)과 배우 정우와 김갑수 주연의 영화 ‘뜨거운 피’(감독 천명관) 등 2편의 영화가 제작 지원 사업을 활용해 전남에서 촬영했다.

‘백두산’은 갑작스러운 백두산 대폭발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총제작 규모 300억원 가운데 3억6천만원을 들여 광양 향만 세트장과 중마부두를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영화 ‘뜨거운 피’는 총 제작규모 102억원이다. 부산 변두리에서 자란 한 남자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다루고 있다. 전남 촬영에 1억2천만원을 들여 목포 신안비치호텔을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다.

여기에 류승범 주연의 영화 ‘타짜3’도 강진 관광해안로와 만덕호 일대에서 촬영했다.

드라마 촬영도 한창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빙의’는 여수 용월사를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드라마 ‘이몽’, ‘우금티’는 순천드라마촬영장과 담양, 보성 일원에서, ‘닥터프리즈너’는 장흥고도소를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다.

최병만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난해 목표에서 촬영한 영화 ‘롱 리브 더 킹’은 6월에, 여수, 영광, 함평에서 찍은 영화 ‘디바’는 9월에 개봉될 예정”이라며 “영화 관람객이 촬영지인 전남을 찾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전남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국내·외 장편 영화 및 지상파·종합유선·웹드라마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남에서 5회차 이상 촬영하는 경우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유류비에 한해 최소 1천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2~4회차 촬영하는 경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김재정기자

## 조환익 전 한전 사장, 광주시장 명예 경제고문 위촉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특히 경제, 에너지, 통상분야 등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조환익 전 한전력공사 사장을 광주시장 명예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명예 경제고문은 급변하는 기술혁신 시대에 대응하고 경제 산업분야 정책 수립 및 자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조 전 사장은 이용섭 시장과 행정고시 14회 동기료 평소 친분이 두터우며, 이 시장의 뛰어난 행정능력과 시장운영 방향에 공감해 광주시장 명예 경제고문을



수락했다. 이번 조 전 사장의 경제고문 위촉은 광주시가 최근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 성장’을 민선7기 산업비전으로 정하고 1대 대표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사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더해져 에너지밸리 조성과 수출촉진, 투자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범기자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개관

16일 오전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교육·숙박 동 ‘별빛누리관’ 개관식에 참석한 정종제 광주 행정부시장과 장병완·김경진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개관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빛그린산단에 공동직장이어린이집 들어선다

광주시내버스 노사

李시장에 ‘적극 중재’ 감사

광주시, 국비 20억7천만원 확보...2021년 3월 개원

빛그린국가산단 내에 공동직장이어린이집이 건립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직장이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에 빛그린국가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안을 제출해 15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공동직장이어린이집은 지난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주형 공공직장이어린이집과는 별개로 현대완성차공장과 컨소시엄 구성 예정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동직장이어린이집은 빛그린산단 내 부지 1천515㎡, 연면적 735㎡에 총사업비 26억5천만원(국비 20억7천만원, 시비 5억8천만원)을 투입해 정원 70명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건립비 일부를 투입해 설치하는 신규조성단지연계형 및 지자체협업형 모델로서, 빛그린산단 조성 후 현대완성차공장 합작법인과 중소기업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대기업인 현대완성차공장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례로서 직장보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시가 협업체 설립하면서 향후 타 자치단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완성차공장 착공 시기에 맞춰 연내 착공해 2021년 2월에 완공, 3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광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다”며 “빛그린국가산단 내 공동직장이어린이집 건립 지원은 광주형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사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중재로 임단협 협상이 원만히 합의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임동춘 버스조합 이사장과 박상복 노조위원장장은 “먼저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임금인상으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노사가 힘을 모아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18이 가까워지면서 온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된 상황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다행이다”며 “올해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맞아 광주의 홍보대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범기자

## 제대로 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 광주시민 5·18 시 낭송회

웅·복합미디어로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광주매일신문이 문학메카낭송 포럼과 함께 시낭송회를 개최합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위한 금번 시낭송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제대로 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
-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주관 : 문학메카낭송포럼
- 문의 : 광주매일신문 기획실 (062-650-2007 · 2078)